

섬유 업계에서 들려오는 토막 소식들

◎ 구라보의 신소재

구라보(倉紡)는 2009년에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왔는데 2010년에는 이들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기대되는 성과 중에서도 첫째가 항바이러스 가공(抗virus 加工)인 ‘클렌제(Cleanse)’이다. 2009년에 개발을 발표한 후로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백의(白衣), 침장(寢裝) 등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미 구체적인 개발 성과(開發 成果)가 오르고 있는 것이 아사히가세이 섬유(旭化成 纖維)와 함께 개발하여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는 뱀베르크 방적사(Bemberg 紡績絲)인 ‘J-파이버’이다. 특히 레이디스 아우터 분야(ladies outer 分野)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다. 뱀베르크의 소재감에 구라보의 방적 기술이 합쳐짐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들 외에 원사에서는 ‘MRT(Material Reform Technology)’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면사를 셀룰로스 분자 레벨(cellulose 분자 level)에서 개질하는 기술로 면사를 새로 기능화(機能化)한 것이다. “산지의 기운을 되찾도록 개발하고 제안하려 한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 중국의 봉제 기업 중에는 오퍼레이터 확보가 우선

중국에서는 오퍼레이터(operator)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봉틀을 급하게 도입하는 봉제 기업도 있다. 2008년 가을에 터진 세계적인 불황이 1년 반 만에 서서히 풀리면서 의류 수출도 바닥을 벗어나게 되자 설비 투자를 다시 시작한 봉제 기업의 재봉틀 발주가 과열되는 것 같다.

중국 봉제 공장의 인력 부족은 충칭(重慶)같은 내륙부에서도 심한데,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봉틀과 함께 재봉틀을 돌릴 오퍼레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키(key)가 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보통 오퍼레이터의 모집 상황을 감안하면서 재봉틀 도입 규모를 조정해 왔다. 그러나 봉제 공장 중에는 재봉틀 도입이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이

러한 기업들에서는 오퍼레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훌륭한 설비를 갖추고, 일을 하는데 대한 안심감(安心感)과 장래성을 응모자(應募者)에게 어필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 닛신보 텍스타일 - 다음 개발은 먼 100%의 상쾌한 기분의 소재

2009년에는 닛신보 텍스타일이 혁신적인 새로운 소재나 가공을 연이어 발표하였는데, 특히 궁극적으로 먼 100% 형태 안정 가공의 아폴로(Apollo) 가공이나 색이 안 빠지는 데님(denim)의 IP 가공이 호평을 받고 있다.

“다음 개발은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먼 100%의 상쾌한 기분을 내는 소재”라고 말하면서, 기술·생산 분야 출신인 사장은 “개발 담당에게 마냥 큰 성과를 독려(督勵)하고 있다.”고 하며 개발 성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 다이와보노이 - 폴리프로필렌의 의류용 소재 개발에 기대

다이와보노이는 새로운 타입의 피지 오염 릴리스 소재(皮脂 汚染 release 素材)인 ‘에코 릴리스(Eco-release)’가 유명 브랜드(有名 brand)로 채용되는 등 신상품 개발을 중요시하는 자세가 확실히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나가사키 사장이 말없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룹 회사(group 會社)가 취급하고 있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 PP)을 의류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PP는 여러 선배들이 고생하면서 키워온 섬유인데, 의류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잊혀지고 있는 존재가 되고 있다. 염색이 안 되는 등의 문제는 있지만, 경량성이나 소수성 등 흥미를 끌만한 기능도 있으므로, 무엇이든 간에 의류에서 활용할 수 없나 심사 숙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일본 국내에서 PP를 취급하고 있는 기업은 적다. 그런 뜻에서는 다이와보의 독자적인 소재이기도 하다. 이 소재의 특성을 살려 다른 소재와의 복합으로, 예컨대 스포츠 소재 등으로의 용도를 개척하고 있다. 이것도 올 다이와보(all 大和紡)가 모두 하나 되어 개발하고 있다.

◎ 중국의 염색 조제·판매 업계는 2010년의 경기 염려

중국의 염색, 날염 조제(染色, 捺染 助劑)의 제조, 판매(製造, 販賣) 업계에서는 “2009년 11, 12월부터 판매가 계속 순조롭게 늘고 있는데, 2010년에도 계속 늘까?”라는 걱정을 크

게 하고 있다.

2008년에는 석유 원료의 시세가 갑자기 올랐는데, 이 뒤를 따라 가을부터 리먼 쇼크(Lehman shock)로 세계 경제가 곤경에 빠지게 되자, 이 업계도 어려운 상황에 빠졌었다. 이러한 흐름이 상승으로 바뀐 것은 2009년 11월부터였다. 수출 봉제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수출품에 사용되는 고급 소재로서 특화된 기업의 주문도 크게 회복되어, 2010년의 봄철 신년 연휴 직전까지 잘 팔렸다.

그러한 상황에서 염려 재료(念慮 材料)의 하나가,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상하이 만물 박람회(上海 萬物 博覽會)가 개최되는데 이에 따른 물류 등에, 새로 생긴 엄격한 규제들이다. 원료에 위험물도 포함될 수 있는 화학제품이 있을 수 있어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 후지보 홀딩스 - BVD의 원점으로 회귀하여 지방 행각

후지보 홀딩스는 “BVD가 원점으로 되돌아가 판매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례가 새로 ‘판매를 크게 늘리는 팀(team)’을 만들고 지방의 유력 도매상에게 직접 제안하는 일이다. “BVD를 새로 출발하던 때는 그 당시의 담당자가 착실하게 지방의 유력한 도매상이나 소매상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상권을 개척해 왔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되돌아가 실제로 현장에 직접 찾아감으로써 수요를 찾아낼 생각이다. “브랜드가 소매자에게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순조롭게 잘 되는데 따라 아무래도 편안히 앉아만 있었던 면이 있었다.”고 냉정하게 되돌아보았다. 실제로 지방으로 찾아가면 거래선들이 심한 말을 퍼붓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런 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브랜드력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 중국 신장에 100만 추 방적 공장이 머지않아 준공

중국의 신장 아커쭈 지구 행서(新疆 阿克蘇 地區 行署)에 의하면 상하이계 방실업 유한공사(上海系 方失業 有限公司)가 투자하여 건설하는 100만 추(鍾) 방적 공장은 신장 아커쭈시(新疆 阿克蘇市)의 경공업 방적 공업 단지에 머지않아 준공(竣工)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22억 위안이며, 주로 100만 추로 섬유 제품을 생산하며, 하루 생산량으로 440 톤의 염색과 연간(年間) 5,000만 점을 생산하는 어패럴 라인 및 부대시설이 설치된다.

이 프로젝트가 생산을 개시하면 연간 25억 위안의 판매 수입이 예상되며, 연간 이익과 납세액은 3억 2,000만 위안으로 추정되며, 1만 명 이상을 새로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신나이가이멘 - 메이커로서의 최후의 가치인 프로 의식이 중요

신나이가이멘의 사장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해온 것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그런 때 특히 중요해지는 것이 메이커로서의 프로 의식(pro 意識 : professional 意識)이다. 섬유 제품이 해외 생산으로 시프트(shift)되고 있는 상황에서 섬유 공정의 하류를 중심으로 한, 업계 속에서는 새로운 상품 개발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는 인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상황일수록 “신상품 개발의 프로(pro : 専門家)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의식은 전사가 공유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메이커로서 최후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산지와와의 협동 등이 결코 쉬운 사업은 아니다. 그래도 사장 이하 모든 사원이 2010년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면서 신상품을 개발하자!”고 결의를 굳히고 있다.♣